

# “불법은 입태(入胎)와 출태(出胎)에 걸림없는 진리”

## 참나에 다 갖춰있음이니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태중에서 나와 첫 일곱 걸음을 걸으신후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도다!” 하시니 정말 희유하고 희우함이라.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깨달은 진리는 입태(入胎)와 출태(出胎)에 걸림이 없어 항상 밝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로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망망대해(茫茫大海)에 한 점의 나뭇잎과 같음이다.

우리 모든 인류여,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알고자할진대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 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의심할지이다. 금생에 참나(眞我)를 알지 못하면 다음 생애 좋은 몸 받아 또다시 이 법 만난다는 보장이 없음이다.

세상 사람들이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한 편으로는 일체중생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찾았지이다.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참나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음이니,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깨달아 만 사람을 진리의 국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갚는 단 하나의 길이다.

모든 국민들이시여, 남(南)과 북(北)의 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 또한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이 난국(亂國)에, 모든 분들이 일심(一心)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다면, 경제와 국력이 더욱 건설해져서 하루빨리 이 난국을 해쳐 나갈 것이며, 남북(南北)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분들이 일상가운데 참선을 생활화하여,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先導)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등공자가 되고 일등국민이 됩시다.

## 부처님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금강합장 정성 모아 부처님오심을 봉축합니다. 신심(信心) 다잡아 부처님 강탄(降誕)을 찬탄합니다.

오고 갔이 자재하신 모습으로 그 옛날 툼비니동산에 꽃비 뿌리며 오시듯이 여기 사바의 중생들을 보살피며 다시 그 모습 다투시는 부처님께 귀명하옵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광명으로 무변(無邊)한 넓이의 자비덕성으로 높이를 사랑(思量)하지 못하는 용맹정진으로 예토(穢土)와 정토(淨土)를 가리지 않고 중생의 심전(心田)에 청정(淸淨) 보리심(菩提心)이 꽃피도록 부처님의 무량한 원력을 서원합니다.

노도(怒濤)처럼 심저(心底)에 휘감아 도는 번뇌도 돌려쓰면 안락(安樂)의 심천(深泉)으로 승화(昇華)되듯이 첨단 과학기술이 미증유의 세상을 열어가고 물질문명이 배부는 더없는 풍요의 세상에서 오늘도 세사(世事)의 깊은 시름소리는 끝이 없거나 부처님의 지비(智悲)의 청량제로써 맑게 녹여 갑시다.

동해 성인봉의 서기(瑞氣)를 온 몸으로 품으시고 말법(末法)의 세상에 육자심인의 정법을 기를 삼아 무진서원(無盡誓願)의 참회법문을 짓기 열어 퍼시니 진각(眞覺)의 종문을 세우시고 심인공부의 법문을 널리 설하신 진각성존(眞覺聖尊)의 본원(本願)도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시는 뜻과 상응(相應)합니다.

산하대지에 생명 기운이 넘쳐나고 녹음방초(綠陰芳草)가 싱그러운 향기 품는 것처럼 시공(時空)을 넘어 오시는 부처님의 자수(慈手)가 세간사의 못 고뇌 녹여 주시도록 정진합니다. 중생계와 천상계가 함께 어울려서 찬탄합니다.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매흠.

##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부처로 모시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모든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넘치고 저마다의 마음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우리 모두는 깊은 성찰과 지혜의 눈으로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새깁니다.

이 땅에 좋은 세상 가꾸기를 꿈꾸는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의식입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흙의 도움으로 만물이 생성합니다. 농부와 노동자의 땀과 정성이 있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손을 잡고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과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와 같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는 우울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자연생태의 재앙이 생명을 위협하고, 야만적인 전쟁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분단의 장기화가 민족공동체를 위협하고, 양극화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또다시 놓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다시 바라볼 것을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합니다.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산천은 세소리, 바람소리, 초목의 푸른 빛,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오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 올립니다. 생명이여!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 사바 어둠 걷어내는 연등 밝히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존경하는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혼자 뛰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개개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존귀한 실존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49년간의 팔만 사천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요체와 대승의 방편으로 인간 본래의 성품인 ‘참된 나’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大道)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 우리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귀한 정신적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일체중생과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코처럼 얽혀 있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무관치 않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가치의 바탕 위에서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상생하는 삶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인류가 함께 밝아갈 할 큰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번뇌로 길들여질 때 지옥을 만들고 자비와 지혜가 가득할 때 극락과 해탈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라는 곳이 진흙탕이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한 한 마음으로 전도된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 광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밝히는 하나의 연등이 사바의 어둠을 걷어내고 부강한 국가와 온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 진리의 향기 온 세계에 널리 퍼뜨리길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2557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요 육도(六道)와 삼생(三生)이 한 바탕임을 일깨워 주셨건만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와 상생을 갈망하는 인류의 여망을 외면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도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서 나아가 세계정세를 불안하게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상을 더욱 좁히고 지식을 크게 확장하였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과 우치(愚癡)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 속에서 지혜를 보고, 지혜로써 자비를 일으키고, 자비로써 역조창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미 부처 이전의 길이요, 중생 이전의 길이었기에 실산동자는 한 구절 진리를 듣기 위해 몸을 던졌고 난타의 가난한 등은 밥을 새우 빛을 발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모두의 생일날입니다. 일체 중생이 눈을 뜨고, 높은 것은 높아서 아름답고 낮은

것은 낮아서 어여쁜 그 본래의 면목을 찬탄하고 환희하는 날입니다. 전쟁의 위험도 경제 불황도 인류의 타락도 본래 없는 것임을 사무쳐 보아, 청정 자성의 심연(深淵)에 연꽃 한 줄기 피워 올리는 날입니다.

오늘을 축하하고 내일을 찬탄하는 축제의 풍악을 울립니다.

부처가 부처를 찾아 안부를 묻고 보살이 보살을 찾아 인사를 나누니 산 빛은 푸르러 부처의 몸이요 하늘은 드높아 보살의 얼굴이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가 가는 길에 부처의 꽃 피어나고 보살이 가는 길엔 보살의 꽃 피어나니 부처의 꽃 보살의 꽃 만중생의 꽃이로다.



## 부처님 법문 실천으로 전하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이가 복덕과 지혜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원만성취 하시길 서원합니다.

25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망상분별이 없어,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나아가 세간(世間) 이치에 명료하여 막힘이 없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의 성취자로 오해와 집착을 떨치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의 주인이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실천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 자타(自他)의 평등성을 깨닫고, 평등성지(平等性智)의 실천을 이해와 화합의 힘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먼저 나와 인연(因緣)이 있는 모든 이의 평등성을 무분별의 지혜로 살피고, 남북 분단의 드러난 현상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민족 그리고 인간이라는

바탕을 불이(不二)의 자세로 다져 민족통일의 서원과 성취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명료하고 막힘이 없는 지혜와 자타평등의 지혜를 갖추어 모든 불자가 세간사 현상을 잘 관찰하여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묘 관찰지(妙觀察智)의 실천으로 우리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한마음 내어 성취에 이르는 성소작지(成所作智)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며, 집착을 떠나 자타의 평등성을 지혜로 살피는 불자가 되어 있는 그대로의 마음 내어 이루는, 마음과 법의 차별이 없는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이의 가정에 복지구족(福智具足)한 나날 되시길 바랍시다.



## 그릇된 욕망 버리면 ‘세계일화’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석존께서는 무명업연의 사바중생을 진리의 바른길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현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외치면서,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며, 갈등과 분쟁으로 국제사회를 혼란과 분열의 암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물질문명에 타락하게 되어 간악한 인간들이 온갖 모략과 작위으로써 자기의 이익만을 찾게 되었으며, 난세와 허구의 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혼돈을 야기하게 되어 전도몽상(顛倒夢想)된 세상에서 잠자기를 잊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리의 마음과 눈으로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청정한 안락정도를 만들어 인류가 하나의 자유공동체로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릇된 욕망을 버리고(捨), 비우면(空), 수용과 절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 심성이 고요하고 지혜가 열려 삼라만상이 광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며 모두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야말로 타인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며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평상심을 시도(是道)를 삼고, 자연섭리에 이순(理順)하면 불신(不信)이 사라져 고뇌가 없을 것이며,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견해를 가진 지식의 사회로 인류와 자연은 평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정의가 바로 서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함께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노력합시다.

## 물질과 명예에 주인공 양보말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참으로 존귀한 삶의 주인공

稽首三界最勝尊(계수삼계최승존)이시여 吉祥無垢盡諸漏(길상무구진제루)이시니 愚夫爲感所沈溺(우부위혹소침입)하나 能以等慈而拔濟(능이등자이발제)하시네.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존재에게 축복 있오라. 그대 비록 번뇌에 묶여 해매고 있으나 대자비로 모두를 구제하신다네.

당신은 그대로 세상의 주인공 물질과 명예에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 밝게 열린 날, 부처님오신날 가야할 길이 열렸으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

## 자비정신 따라 베풀고 나누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못 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동족 간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화를 내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들은 욕심이 빛을 잃은 일을 또 다른 욕심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원망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회는 더욱 몰육에 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가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따라 가진 자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회가 될 때에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 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미움은 미움으로서 풀리지 않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에 풀려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중생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가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